

小字本系統 『金匱要略』 吳遷本の 特徵에 대한 考察 - 鄧珍本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¹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²
金東輝^{1, 2} · 丁彰炫² · 白裕相² · 金尙賢^{1, 2} · 安鎮燾^{1, 2} · 朴盛辰^{1, 2} · 張祐彰^{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uqian Edition(吳遷本) of Jinguiyaolue(金匱要略) written in Small Letters

Kim Dong-hui^{1, 2} · Jeong Chang-hyun² · Baik You-sang² · Kim Sang-hyun^{1, 2}
Ahn Jin-hee^{1, 2} · Park Seong-jin^{1, 2} · Jang Woo-chang^{2*}

¹Dep.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²Dep.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 The recently reported Wuqian edition(吳遷本) *Jinguiyaolue*(金匱要略) is known to be written in small letters unlike other large lettered versions of the book. The Wuqian edition(吳遷本) takes after the name of Wuqian who copied an ancient version that was found at the time(Ming dyanasty, 1395). It is known to differ in organization and contents to other version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small-lettered version of the *Jinguiyaolue* had been created, through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Wuqian edition, and evaluate its value as a new version of the *Jinguiyaolue*.

Method : First, the systems of both large-lettered and small-lettered versions of the 『Jinguiyaolue』 were briefly examined, followed by comparison from chapter 1 to 22, of organization, contents, and formulas between the oldest version of the large-lettered versions, the Deng-zhen edition, and the newly discovered Wuqian edition of which examples of each item are listed. The original source was identified for parts that were different.

Result & Conclusion : 1. The Deng-zhen edition and Wuqian edition show vast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table of contents, name of chapter, location of each verse or line, existence of certain verses or lines, name of formula, quantity of medicinal ingredients, processing methods and other aspects.

2. The small-lettered edition was published based on the large-lettered edition of the *Jinguiyaolue* published by the Jiaozheng-yishuju(校正醫書局) after a general cross-examination process followed by selection,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large-lettered edition. Reference texts used in cross-examination were *Qianjinyaofang*(千金要方), *Waitaimiyao*(外臺秘要), *Maijing*(脈經), and *Shanghanlun*(傷寒論).

3. Considering Wuqian's own annotations and preface, it is clear that he wanted to create the best version of the 『Jinguiyaolue』. Wuqian himself seems to have had professional knowledge of bibliography and medicine.

Key Words : Wuqian Edition(吳遷本), Deng-zhen edition(鄧珍本), Jinguiyaolue(金匱要略)

I. 序 論

『金匱要略』은 雜病 분야에 있어 脈證과 處方을 제시하고 있는 最古의 臨床醫書로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雜病 분야 연구에 根幹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金匱要略』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고 매우 간략하여 활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金匱要略』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그 板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데, 최근 『金匱要略』의 새로운 板本이 발견되었으며 그 編制 및 내용에 있어서 기존 板本과는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通用되는 국내의 『金匱要略』 刊行本の 底本은 모두 鄧珍本 또는 鄧珍本에서 파생된 板本으로 이들은 모두 大字本系統 『金匱要略』이며, 최근에 보고된 板本은 小字本系統 『金匱要略』으로 알려져 있다. 이 小字本系統 『金匱要略』은 吳遷本으로 불리는데, 北宋 때 刊行된 小字本 『金匱要略』은 亡失되었고 최근 발견된 吳遷本은 吳遷이란 인물이 당시[明代 1395년]에 발견한 古本을 직접 필사하여 만들어진 板本이다.

본 연구는 새롭게 발견한 吳遷本을 토대로 만들어진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¹⁾의 鄧珍本과 吳遷本을 기준으로 하였다. 吳遷本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앞의 책 卷末에

실린 眞柳誠의 解題²⁾가 있고, 論文으로는 眞柳誠과 段逸山의 論文이 있다³⁾. 이 두 論文은 주로 『金匱要略』의 板本과 吳遷本の 書誌學的 내용이 위주이며 吳遷本과 鄧珍本の 條文 비교는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국내에는 『金匱要略』 板本에 대한 논문은 있으나⁴⁾ 吳遷本에 대해 보고되거나 연구된 바는 없다.

本論에서는 우선 大字本系統 『金匱要略』과 小字本系統 『金匱要略』의 板本 系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⁵⁾, 그 후에 1~22篇까지 大字本系統 『金匱要略』 중 最古本인 鄧珍本과 새롭게 발견된 小字本系統 『金匱要略』인 吳遷本の 編制, 條文 내용, 處方 등에 대해 자세히 비교하여 항목별로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鄧珍本과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原出典을 최대한 밝히고자 하였다⁶⁾. 이를 통해 小字本 『金

* 교신저자 : 張祐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jangchang@khu.ac.kr. Tel : 02-961-0735
접수일(2013년 10월25일), 수정일(2013년 11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2)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p.429-441.

3) 眞柳誠. 梁永宣, 段逸山, 鄒西禮. 金匱要略의 成書與現存板本問題. 中華醫史雜誌. 2009. 39(6). pp.357-363.

段逸山, 鄒西禮. 明抄北宋小字本金匱要略方研究. 中醫文獻雜誌. 2010. (2). pp.1-5.

4) 엄용하,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金匱要略의 板本成立에 대한 文獻的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2001. 15(2). pp.197-204.

이덕민, 윤창열. 金匱要略의 형성과 학술 특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12(2). pp.41-61.

李仙蘭. 金匱要略心典에 대한 研究. 尙志大學校 大學院. 2005.

5) 이 부분은 眞柳誠과 段逸山의 두 論文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했음을 밝히며, 더 자세한 것은 두 論文을 참고 하길 바란다.

6) 이 작업은 鄧珍本을 底本으로 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 기타 『金匱要略』 板本 및 『千金要方』 등 醫書와 對校한 『金匱要略校注』(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를 참고로 하였다. 이 책에서 밝힌 부분은 原出典에서 재확인 하였으며, 밝히지 않은 부분은 『千金要方』

匱要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刊行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吳遷本의 새로운 板本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金匱要略』 板本系統 요약

현존하는 『金匱要略』은 北宋 校正醫書局에서 孫奇 등이 『金匱玉函要略方』을 再編, 校正하여 『金匱要略方論』을 刊行한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金匱要略』의 주요 板本으로는 최근 알려진 吳遷本을 제외하고 현재 약 60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모두 元代에서 明代까지의 5종의 板本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중 明代 4종의 板本은 모두 元代 鄧珍本에서 파생된 것이다⁷⁾.

이와 달리 최근 발견된 吳遷本은 기존의 『金匱要略』과 編制 및 條文 위치, 句節의 有無, 處方名, 藥物 用量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吳遷本 卷末에 붙은 國子監 跋文을 통해 이 板本이 小字本系統 『金匱要略』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大字本, 小字本은 『金匱要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宋代 校正醫書局의 板本 유형으로 字體의 大小로 구분하여 大字本, 中字本, 小字本 3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大字本’은 板本の 글자가 급속 화폐[硬幣] 크기와 비슷하며 한 板木이 약 B4크기로 400字 정도가 들어가 있고 政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고급의 板本이며, 小字本은 대략 B5크기로 600字 정도가 들어가고 民間의 醫書로 보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

大字本 『金匱要略』은 곧 北宋 때(1066년) 校正醫書局에서 刊行한 『金匱要略方論』을 가리키고, 小字本 『金匱要略』은 大字本 『金匱要略』이 刊行된 지 약 30년 후(1096년) 國子監에서 刊行한 板本을 가리킨다[두 板本의 原本은 모두 亡失됨].



그림 1.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에 실린 『金匱要略方』 吳遷本(首卷第一前半葉) 上海圖書館所藏



그림 2.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吳遷本 p.330.

등 醫書를 검토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醫統本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金匱要略校注』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 7) 眞柳誠, 梁永宣, 段逸山, 鄒西禮. 金匱要略의 成書與現存板本問題. 中華醫史雜誌. 2009. 39(6). p.359.
- 8) 『醫方類聚』[1477년 刊行]에도 『金匱要略』의 대부분이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편의 條文을 비교해본 결과 『醫方類聚』에 실린 『金匱要略』은 大字本系統인 것으로 판단된다.
- 9) 錢超塵. 宋本『傷寒論』刊行后流傳演變簡史. 醫史文獻. 2004. (2). p.12.
- 10) 眞柳誠, 梁永宣, 段逸山, 鄒西禮. 金匱要略의 成書與現存板本問題. 中華醫史雜誌. 2009. 39(6). p.359.

1) 大字本系統

① 鄧珍本(元代 1340년 刊行)

書名은 『新編金匱方論』으로 現存하는 『金匱要略』板本 중 가장 앞선 板本으로 『金匱要略』原形을 가장 보존하고 있는 板本으로 여겨지고 있다¹¹⁾.

② 趙開美本(明代 1599년 刊行)

근 『仲景全書』에 포함된 板本으로 비교적 정밀하고 오류가 비교적 적다고 인정받고 있다¹²⁾¹³⁾.

그 외 明代 無名氏本, 俞橋本(1536년 전후 刊行), 徐鎔本¹⁴⁾(1585년 刊行) 등이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鄧珍本과 趙開美本이 善本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板本들은 주로 校勘時에 활용되고 있다¹⁵⁾.

2) 小字本系統[吳遷本-金匱要略方]

書名은 『金匱要略方』이다.

吳遷本은 清代 기록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데¹⁶⁾, 그 후 학계에 알려지지 않다가 沈津의 서적¹⁷⁾에서 明初의 『金匱要略』筆寫本이 中國某處에 있다는 간략한 언급이 있었고, 이에 眞柳誠이 上海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추측하여 2007년 현지 조사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¹⁸⁾.

吳遷本 卷末에는 두 개의 跋文이 있는데, 우선 吳遷의 跋文을 보면 明代 1395년 吳遷이 73세 때 祝均實이 소장하고 있던 古本을 얻어 23일 동안 직접 筆寫한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이 吳遷本은 1395년 筆寫한 原本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²⁰⁾, 吳遷과 祝均實의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吳遷의 跋文에 앞서 國子監 跋文이 보이는데, 小字本 『金匱要略』이 北宋 紹聖三年(1096년)에 刊行되었으며²¹⁾, 『金匱要略』뿐만 아니라 여러 의서가 小字本으로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小字本 『金匱要略』을 刊行하게 된 취지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민간용 醫書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며, 小字本 刊行이 단순히 板本 크기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교감 작업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²²⁾.

2. 鄧珍本과 吳遷本 비교

1) 編制 상 차이

鄧珍本과 吳遷本은 20~23篇의 編制가 다르다. 鄧珍本은 「雜療方」이 下卷의 婦人病 3편 뒤에 있는 반면 吳遷本에서는 「雜療方」이 中卷 마지막 편으로 婦人病 3篇에 앞서 위치해 있다(표1).

1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
12)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
13) 뒤 本論에서 趙開美本을 언급한 경우에는 『仲景全書』(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를 이용하였다. 참고로 이 책의 편제 및 구성은 趙開美가 처음 編한 것에서 후대에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된 것이다.(胡正剛, 陳莉. 張卿子《仲景全書》版本流變簡考. 中醫文獻雜誌. 2012. (1). pp.5-8.)
14) 徐鎔本은 1598년 吳勉學이 이를 校正하여 刊行하였으며, 이것이 1601년 『古今醫統正脈全書』(醫統本으로 불림)에 編入되었다.(眞柳誠, 梁永宣, 段逸山, 鄒西禮. 金匱要略의 成書與現存板本問題. 中華醫史雜誌. 2009. 39(6). p.360.)
15)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
16) 段逸山, 鄒西禮. 明抄北宋小字本金匱要略方研究. 中醫文獻雜誌. 2010. (2). p.2.
17) 沈津. 中國珍稀古籍善本書錄.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p.208, 209. 개인용.
18) 眞柳誠, 梁永宣, 段逸山, 鄒西禮. 金匱要略의 成書與現存板本問題. 中華醫史雜誌. 2009. 39(6). p.361.

19)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411. “…… 今得祝先生均實所藏古本, 老眼雖昏, 勉強錄之, 洪武二十八年(1395年)歲次乙亥秋八月三日甲子, 寫至二十五日丙戌而成, 時年七十三吳遷景長識”
20) 眞柳誠. 北宋政府校正『金匱要略』小字本の出現. 日本東洋醫學雜誌. 2008. p.59.
21) 小字本 『金匱要略』은 北宋 紹聖三年(1096)에 刊行되고 南宋 紹興年間(1131~1162)에 重刊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國子監 跋文에 紹聖三年六月만 기재되어 있고 紹興年間에 중간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南宋 때에는 避諱하여 ‘丸’ 대신에 ‘圓’을 사용했지만 吳遷本에는 丸이 85곳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吳遷本의 底本은 北宋 紹聖三年에 刊行된 初刊本으로 판단된다.(段逸山, 鄒西禮. 明抄北宋小字本金匱要略方研究. 中醫文獻雜誌. 2010. (2). p.2, 3.)
22)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410. “…… 今有千金翼方·金匱要略方·王氏脈經·補注本草·圖經本草等五件醫書日用不可闕, 本監雖見印賣, 皆是大字, 醫人往往無錢, 請買兼外州軍, 尤不可得, 欲乞開作小子, 重行校對出賣, 及降外州軍 …… 勅命指揮施行 紹聖三年[1096년]六月 ……”

	〈鄧〉	→	〈吳〉
「婦人妊娠病脈證并治」	20	→	21
「婦人産後病脈證治」	21	→	22
「婦人雜病脈證并治」	22	→	23
「雜療方」	23	→	20

표1. 鄧珍本과 吳遷本 編制 상 차이

2) 篇名 관련

① 篇名 차이

鄧珍本에서는 19篇 篇名이 「跣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蚘蟲病脈證治」로 되어 있고 吳遷本에는 「跣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蚘蟲病脈證治」로 되어 있다. 吳遷本 2조에서도 篇名과 동일하게 ‘腫’이 ‘脛’으로 되어 있다²³⁾²⁴⁾.

② 篇名에 附記된 내용이 있는 경우

鄧珍本에는 5篇의 篇名이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로 되어 있으며 이 뒤에 「論」 ‘脈證’ ‘方’ 數가 나오는데 吳遷本에는 方數 뒤에 ‘脚氣附’가 더 있다. ‘脚氣附’는 본 篇의 烏頭湯, 礬石湯, 崔氏八味丸 條文中에서 脚氣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篇의 注文에서 ‘方見脚氣’라고 한 것은 5篇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⁵⁾.

3) 條文, 句節 위치

① 條文의 위치가 다른 경우

「藏府經絡先後病脈證 第一」

吳遷本에는 ‘問曰上工治未病, 何也, …… 理者, 是皮膚藏府之文理也.’가 1篇의 條文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卷上[1~10篇]의 篇目次 앞에 쓰여 있는데²⁶⁾,

23) <吳> ‘病人常以手指臂腫動, 此人身體調轉者, 藜蘆甘草湯主之’

24) 다만 1조는 跣蹶, 3조는 轉筋, 4조는 陰狐疝, 5조 이후는 蚘蟲病에 대한 條文으로 각각의 病名으로 篇名이 이뤄져 있는데, 吳遷本과 같이 ‘手指臂脛’이라고 한다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25) 예를 들면 6篇 「血痺虛勞病脈證并治」 15條文을 보면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者, 八味腎氣丸主之.(方見脚氣中)’으로 되어 있다.

26) <吳> “問曰上工治未病, 何也. 師曰夫治未病者, 見肝之病, 知肝傳脾, 當先實脾. 四季脾正不受邪, 即勿補之. 中工不曉

이는 이 두 條文을 卷上の 總論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法 第十」

<吳> 21. 問曰人病有宿食, 何以別之. 師曰寸口脈浮而大, 按之反澹, 尺中亦微而澹, 故知有宿食, 大承氣湯主之.

22. 脈緊者²⁷⁾如轉索無常者, 有宿食.

23. 脈緊, 頭痛風寒, 腹中有宿食不化.(一云寸口脈緊)

24. 脈數而滑者, 實也, 此有宿食, 下之愈. 宜大承氣湯.

25. 下利不欲食者, 有宿食故也, 當下之. 宜大承氣湯.

26. 宿食在上脘, 當吐之. 宜瓜蒂散.

鄧珍本에는 22, 23조가 26조 뒤에 있는데, 吳遷本에는 이 두 條文이 21조에 이어 나온다. 24조부터 언급되는 宿食의 처방에 앞서 宿食의 脈證 관련 條文을 언급하는 것이 보다 순조롭다²⁸⁾²⁹⁾.

相傳, 見肝之病, 不解實脾, 惟治肝也. 夫肝之病, 補用酸, 助用焦苦, 益用甘味之藥調之, 酸入肝, 焦苦入心, 甘入脾. 脾能傷腎, 腎氣微弱則水不行, 水不行則心火氣盛, 則傷肺, 肺被傷則金氣不行, 金氣不行則肝氣盛, 則肝自愈. 此治肝補脾之要妙也. 肝虛則用此法, 實則不在用之. 經云虛虛實實, 補不足損有餘, 是其義也. 餘藏準此. 夫人稟五常, 因風氣而生長. 風氣雖能生萬物, 亦能害萬物, 如水能浮舟, 亦能覆舟. 若五藏元真通暢, 人即安和, 客氣邪風, 中人多死. 千般疾難, 不越三條. 一者, 經絡受邪入藏府, 爲內所因也. 二者, 四肢九竅, 血脈相傳, 壅塞不通, 爲外皮膚所中也. 三者, 房室金刃蟲獸所傷. 以此詳之, 病由都盡. 若人能養慎, 莫令邪風干忤經絡, 適中經絡, 未流傳府藏, 即醫治之. 四肢亦覺重滯, 即導引吐納鍼灸膏摩, 勿令九竅閉塞, 更能無犯王法禽獸災傷. 房室勿令竭之, 服食節其冷熱苦酸辛甘, 不遺形體有衰, 病則無由入其腠理. 腠者, 是三焦通會元真之處, 爲血氣所注, 理者, 是皮膚藏府之文理也.”

27) 鄧珍本에는 ‘者’가 없다.

28) 『脈經』의 주문 순서 또한 吳遷本과 같다. 다만 吳遷本과는 글자 출입이 있고 25와 26조 사이에 다른 주문이 들어가 있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327-328.)

29) 이외에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第十六」의 遠血, 近血에 대해 鄧珍本에서는 12조에서 遠血의 정의와 처방, 13조에서는 近血의 정의와 처방에 대해 차례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吳遷本에서는 12조에서 近血, 遠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언급한 후에 遠血의 처방을 언급하고 있으며 13조에서 近血의 처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또한 證

② 앞 뒤 두 條文을 합한 경우

「瘧渴病脈證治 第二」

<吳> ①病者身熱足寒，頸項強急，惡寒，時頭熱，面赤目脈赤，獨頭動搖，卒口禁，背反張者，瘧病也。

①瘧病³⁰⁾發其汗者，寒濕相得，其表益虛，即惡寒甚，發其汗已，其脈如蛇(一云其脈冷洽)，③暴腹脹大者，爲欲解，脈如故，反伏弦者，瘧。

鄧珍本에는 ③가 앞 句節과 나뉘어져 ①②와 ③의 두 條文으로 나뉘어 있는데, 吳遷本에는 ①의 조문에 이어서 ②와 ③ 句節이 한 條文으로 되어 있다. 吳遷本에서는 瘧에 發汗한 후 可治[發汗 후 ‘其脈如蛇，暴腹脹大者’한 경우]와 不可治[發汗 후 ‘脈如故，反伏弦者’한 경우]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³¹⁾³²⁾.

③ 條文을 분리한 경우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吳> ①問曰熱在上焦者，因咳爲肺痿。肺

을 먼저 언급하고 方을 뒤에 언급하는 방식이다. <鄧>“12. 下血，先便後血，此遠血也，黃土湯主之。13. 下血，先血後便，此近血也，赤小豆當歸散主之。(方見狐惑中)” <吳>“12. 下血，先見血後見便，此近血也。先見便後見血，此遠血也。遠血，黃土湯主之。方(亦主吐血衄血) 13. 近血，赤小豆當歸散主之。(方見狐惑中)”

30) 鄧珍本에는 ‘瘧病’이 ‘若’으로 되어 있다.

31) 『東醫寶鑑·雜病·風·破傷風脈』을 보면, 瘧의 脈은 弦直한데 發汗 후 脈이 뱀이 기어가듯 하는 경우는 瘧가 풀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전의 弦直한 脈象과 유사한 弦緊의 脈象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잠복하면서 단단하면 상할 것이라고 하였다.(瘧脈弦直，或沈細些。汗後欲解，脈澀如蛇。弦緊尙可，伏堅傷嗟。(回春)) 여기서 상할 것이라고 한 것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東醫寶鑑·雜病·風·破傷風形證』의 “혹 發表하면 곧 죽는다.(或發其表，則死不旋踵(河間))”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陳株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法仁文化社. 서울. 2012. p.1056, 1057.)

32) 『脈經』에는 吳遷本과 같이 ①와 ③ 句節이 한 조문으로 되어 있다. 다만 吳遷本과는 글자 출입이 있고 ①와 ③② 조문 사이에 葛根湯, 大承氣湯 조문이 있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297.) 陳念祖, 唐宗海 또한 ③를 앞 條文에 이어서 봐야한다고 했다.(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8.)

痿之病，何從得之。師曰或從汗出，或從嘔吐，或從消渴，小便利數，或從便難，又被快藥下利，重亡津液，故得之。

①問曰寸口脈數，其人咳，口中反有濁唾涎沫者何。師曰此爲肺痿之病。若口中辟辟燥，咳即胸中隱隱痛，脈反滑數，此爲肺癰，咳唾膿血。脈³³⁾數虛者爲肺痿，數實者爲肺癰。

鄧珍本에는 ①, ②가 한 條文으로 이어져 있으나 吳遷本에는 肺痿, 肺癰의 두 내용에 따라 두 條文으로 분리돼 있다.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第十」

<鄧> ①其脈數而緊乃弦，狀如弓弦，按之不移，脈數弦者，當下其寒，②脈緊大而遲者，必心下堅，脈大而緊者，陽中有陰，可下之。

<吳> ①夫脈浮而緊乃弦，狀如弓弦，按之不移，脈數弦者，當下其寒。

②脈雙弦而遲者，必心下堅，脈大而緊者，陽中有陰，可下之。

이 條文은 寒疝관련 脈法이다. 鄧珍本에는 ①와 ②가 한 條文으로 이어져 있는데, 吳遷本에는 두 條文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는 『脈經』을 근거로 條文을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吳遷本の 문장과도 일치 한다³⁴⁾.

④ 鄧珍本 條文의 일부 句節이 吳遷本에서는 方後文에 있는 경우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肺痿吐涎沫而不咳者，其人不渴，必遺尿，小便數。所以然者，以上虛不能制下故也。此爲肺中冷，必眩，多涎唾，甘草乾薑湯以溫之。①若服湯已渴者，屬消渴。

33) 吳遷本에는 ‘脈’이 ‘肺’로 되어 있는데, 鄧珍本을 따라 ‘脈’으로 고쳤다.

34) 참고로 『脈經』에서는 ①와 ②가 연이은 條文으로 나오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① 뒤에 ‘脇下偏痛，其脈緊弦，此寒也，以溫藥下之。宜大黃附子湯’이 붙어 있는데, 이 句節은 『金匱要略』 같은 篇의 大黃附子湯 條文과 거의 같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25, 327.)

甘草乾薑湯方

甘草四兩，炙 乾薑二兩，炮

右咬咀，以水三升，煮取一升五合，去滓，分溫再服。 <吳> ①服湯已，小溫覆之。若渴者，屬消渴。

鄧珍本の ㉑가 吳遷本에서는 ㉒에 위치해 있고 내용도 추가되어 있는데, 내용상 方後에 위치하는 것이 순조롭다³⁵⁾.

⑤ 鄧珍本の 條文이 附方으로 되어 있는 경우

「婦人妊娠脈證并治 第二十」

<鄧> 妊娠養胎，白朮散主之。

白朮散方(見外臺) ……

吳遷本에는 이 條文이 ‘附方’ 뒤에 ‘妊娠養胎，白朮散方。……’으로 기술되어 있다. 白朮散은 『外臺秘要』에 나오는 처방으로 附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⁶⁾.

⑥ 鄧珍本에는 앞 條文에 붙어 있는 처방이 吳遷本에는 별도 條文으로 기술된 경우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鄧> 2. 寸口脈浮而緊，緊則爲寒，浮則爲虛。寒虛相搏，邪在皮膚。浮者血虛，絡脈空虛，賊邪不瀉，或左或右，邪氣反緩，正氣即急，正氣引邪，喎僻不遂。邪在於絡，肌膚不仁，邪在於經，即重不勝，邪入於府，即不識人，邪入於藏，舌即難言，口吐涎。

㉑侯氏黑散。治大風，四肢煩重，心中惡寒不足者。(外臺治風癩)

吳遷本에는 ㉑가 2조와 별도의 條文으로 ‘大風，四肢煩重，心中惡寒不足者，侯氏黑散主之。(外臺治風癩)’라고 되어 있다. 현재 通用되는 『金匱要略』에는

鄧珍本과 같이 2조의 처방으로 되어 있다³⁷⁾. 또한 吳遷本에는 鄧珍本の 侯氏黑散 바로 뒤의 조문 ‘寸口脈遲而緩 …… 則胸滿而短氣’가 없는데, 侯氏黑散부터 風引湯, 防己地黃湯, 頭風摩散을 모두 독립된 조문 또는 처방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³⁸⁾.

4) 條文과 句節이 빠져 있는 경우

① 鄧珍本에 있는 句節이 吳遷本에 없는 경우³⁹⁾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鄧> 脈浮而洪，浮則爲風，洪則爲氣。㉑風氣相搏，風強則爲隱疹，身體爲痒。痒爲泄風，久爲痂癩。氣強則爲水，難以俛仰。風氣相擊，身體洪腫，汗出乃愈。惡風則虛，此爲風水。不惡風者，小便通利，上焦有寒，其口多涎，此爲黃汗。

㉑는 ‘風強’, ‘氣強’에 따른 隱疹과 水氣病의 대략

37)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58, 160.

38) <鄧> ‘風引湯. 除熱癰瘤’은 <吳> ‘風引除熱主癰瘤湯’으로, <鄧> ‘防己地黃湯. 治病如狂犬, 妄行, 獨語不休, 無寒熱, 其脈浮’은 <吳> ‘病如狂狀, 妄行, 獨語不休, 無寒熱, 其脈浮, 防己地黃湯主之’로 되어 있다.

39) 鄧珍本에 있는 條文, 句節이 吳遷本에 없는 경우는 이외에 몇 가지 경우가 더 있다.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3. 寸口脈遲而緩. 遲則爲寒, 緩則爲虛, 榮緩則爲亡血, 衛緩則爲中風. 邪氣中經, 則身癢而癢疹. 心氣不足, 邪氣入中, 則胸滿而短氣.

7. 味酸則傷筋, 筋傷則緩, 名曰泄. 鹹則傷骨, 骨傷則痿, 名曰枯. 枯泄相搏, 名曰斷泄. 營氣不通, 衛不獨行, 營衛俱微, 三焦無所御, 四屬斷絕, 身體羸瘦, 獨足腫大, 黃汗出, 脛冷. 假令發熱, 便爲歷節也.

; 吳遷本(吳遷本)에는 위 두 條文이 없다.

8. 病歷節, 不可屈伸疼痛, 烏頭湯主之.

烏頭湯方. 治脚氣疼痛, 不可屈伸.(吳遷本에는 이 句節이 없다.)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10. 脈浮而細滑, 傷飲.

11. 脈弦數, 有寒飲, 冬夏難治.

12. 脈沈而弦者, 懸飲內痛. (여기부터는 있음) 病懸飲者, 十棗湯主之.

; 吳遷本에는 10, 11, 12(앞부분)조가 없다.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3. 寸口脈沈滑者, 中有水氣, 面目腫大, 有熱, 名曰風水. 視人之目裹上微腫, 如蠶新臥起狀, 其頸脈動, 時時咳, 按其手足上, 陷而不起者, 風水

; 吳遷本에는 이 條文이 없다.

35) 吳遷本の 문장은 『千金要方』을 따른 것인데, 『千金要方』에는 鄧珍本과 같이 條文 뒤에 붙어 있다. “…… 甘草乾薑湯以溫其藏. 服湯已, 小溫覆之. 若渴者, 屬消渴, 法甘草乾薑湯方”(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10.)

36) 이외에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第十六」의 마지막 조문 <鄧> ‘心氣不足, 吐血, 衄血, 瀉心湯主之.’이 吳遷本에는 附方으로 되어 있다.(附方. 治心氣不足, 吐血, 衄血. 瀉心湯方.)

적인 病機를 말한 것인데, 吳遷本에서는 이 條文을 風水, 黃汗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㉔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誤謬로 인한 脫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鄧珍本에 없는 條文이 吳遷本에 있는 경우

吳遷本에는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附方 맨 끝에 鄧珍本에 없는 “咳而上氣, 肺脹, 其脈浮, 心下水氣, 脇下痛引缺盆, 小青龍加石膏湯主之.(方見上. 並見千金.)”의 條文이 더 있다. 이 條文은本篇의 15조와 유사한데⁴¹), 鄧珍本에서는 15조의 ‘小青龍加石膏湯方’ 뒤에 注釋으로 ‘千金證治同, 外更加脇下痛引缺盆’이라고 하여 『千金要方』의 條文과 비교하고 있다. 小字本에서는 이 注釋의 原出典인 『千金要方』의 條文을 附方 맨 끝에 추가하였다⁴²).

5) 鄧珍本에서 알아 볼 수 없는 글자나 빠진 글자가 吳遷本에 보이는 경우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鄧> 治大人風引, 少小驚癇瘈瘲, 日數十後⁴³, 醫所不療. 除熱方. 巢■, 脚氣宜風引湯.

위 句는 風引湯 方後文 끝에 달려 있는 주석이다.

鄧珍本에는 ‘巢’字 다음 부분이 검게 되어 있어 알아 볼 수 없는데, 吳遷本에는 ‘巢源’으로 되어 있고 현재 通用되는 『金匱要略』에는 醫統本 등에 따라 ‘巢氏云’으로 되어 있다⁴⁴45). 鄧珍本の 검게 된 부분의 크기로 보건대 1글자가 분명하므로 吳遷本の ‘巢源’이 타당하다. ‘巢源’은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法 第十」

<鄧> 烏頭桂枝湯方

烏頭

右一味. 以蜜二斤, 煎減半, 去滓, 以桂枝湯五合解之, □得一升後, 初服二合 ……

鄧珍本에는 ‘之’ 뒤의 한 글자가 흐릿하여 알아볼 수 없는데, 吳遷本에는 ‘令’으로 되어 있다. 趙開美本에는 ‘之’ 다음에 바로 ‘得一升後’가 이어져 있다⁴⁶).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鄧> …… 脈雙弦者, 寒也, 皆大下後□虛. 脈偏弦者, 飲也.

鄧珍本에는 ‘後’字 뒤에 한 글자가 빠져 있는데, 吳遷本에는 ‘喜’字로 되어 있다⁴⁷).

6) 誤謬 수정 및 보완

① 「百合狐惑陰陽毒病脈⁴⁸證治 第三」

<鄧> 論曰百合病者, 百脈一宗, 悉治其病也. → <吳> 致

鄧珍本の ‘治’는 文義가 통하지 않는다. 趙開美本

40) 『脈經』에는 이 句節이 條文에 들어가 있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12.)

41) 15. 肺脹, 咳而上氣, 煩躁而喘, 脈浮者, 心下水, 小青龍加石膏湯主之.

小青龍加石膏湯方(千金證治同, 外更加脇下痛引缺盆)

麻黃 芍藥 桂枝 細辛 甘草 乾薑各三兩 五味子 半夏各半升 石膏二兩

右九味. 以水一斗, 先煮麻黃, 去上沫, 納諸藥, 煮取三升. 強人服一升, 羸者減之, 日三服, 小兒服四合.

42)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28. 「卷第十八·咳嗽第五」

“咳而上氣, 肺脹, 其脈浮, 心下水氣, 脇下痛引缺盆, 設若有實者必躁, 其人常倚伏, 小青龍加石膏湯主之. 方

石膏 乾薑 桂心 細辛(各二兩) 麻黃(四兩) 芍藥 甘草(各三兩) 五味子(一升) 半夏(半升)

右九味. 以水一斗, 先煮麻黃, 減二升, 下藥煮取二升半, 強人服一升, 羸人減之, 小兒四合.(仲景用治肺脹, 咳而上氣, 煩躁而喘, 脈浮者, 心下水.(外臺同))”

43) 吳遷本에는 ‘日數十後’가 ‘日數十發’로 되어 있고, 趙開美本에는 ‘日數服後’로 되어 있다.(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66.)

44) 『金匱要略校注』에서는 醫統本을 따라 ‘氏云’ 두 字를 넣었다.(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 재인용)

45) 趙開美本에는 ‘巢氏云’으로 되어 있는데, ‘窠’는 ‘巢’의 오타로 보인다.(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66.)

46)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87.

47) 趙開美本에는 ‘善’으로 되어 있고(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92.), 醫統本에는 ‘喜’로 되어 있다(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2. 재인용).

48) 鄧珍本에는 ‘脈’字가 없으나 吳遷本에 근거하여 ‘脈’을 넣었다.

에도 吳遷本과 같이 ‘致’로 되어 있다⁴⁹⁾.

②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吳> 附方. 古今錄驗續命湯. ……

鄧珍本에는 ‘附方’이 빠져 있다. 古今錄驗續命湯 이후의 처방들은 附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1. …… 曰寸口脈數, 其人咳, 口中反有濁唾涎沫者何. 師曰爲肺痿之病. 若口中辟辟燥, 咳即胸中隱隱痛, 脈反滑數, 此爲肺癰, 咳唾膿血. 脈數虛者爲肺痿, 數實者爲肺癰.

吳遷本에는 ‘爲’ 앞에 ‘此’가 있어 문의가 순조롭다. 趙開美本에도 鄧珍本과 같이 ‘爲’로 되어 있으며⁵⁰⁾, 『脈經』에 ‘此爲’로 되어 있다⁵¹⁾.

④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問曰病咳逆, 脈之何以知此爲肺癰. 當有膿血, 吐之則死, 其脈何類. 師曰寸口脈微而數. 微則爲風, 數則爲熱, 微則汗出, 數則惡寒. 風中於衛, 呼氣不入, 熱過於營, 吸而不出. 風傷皮毛, 熱傷血肺, 風舍於肺, 其人則咳. 口乾喘滿咽燥不渴, 時唾濁沫, 時時振寒. 熱之所過, 血爲之凝滯, 蓄結癰膿, 吐如米粥. 始萌可搽, 膿成則死.

‘血肺’는 吳遷本에 ‘血脈’으로 되어 있다. 條文을 보면 風은 皮毛를 상하게 해서 肺에 머물러 기침을 일으키고, 熱은 血을 엉기게 해서 癰膿이 쌓이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血肺’는 ‘血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千金要方』⁵²⁾ 및 趙開美本⁵³⁾에도 ‘血脈’으로 되어 있다.

⑤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咳而胸滿, 振寒脈數, 咽乾不渴, 時出濁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者, 爲肺癰. 桔梗湯主之.

桔梗湯方(亦治血痺)

桔梗一兩 甘草二兩

右二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分溫再服, 則吐膿血也.

‘血痺’는 吳遷本에 ‘喉痺’로 되어 있는데⁵⁴⁾, 咽喉痛, 喉痺에 桔梗, 甘草를 응용하는 것으로 보아 喉痺가 타당하다⁵⁵⁾. 趙開美本에는 鄧珍本과 같이 ‘血痺’로 되어 있다⁵⁶⁾.

⑥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外臺炙甘草湯. 治肺痿涎唾多, 心中溫溫液液者.(方見虛勞)

千金甘草湯. 甘草. 右一味. 以水三升, 煮減半, 分溫三服.

<吳>

肺痿涎唾多, 心中溫溫液液者, 炙甘草湯主之.(方見虛勞門中. 見外臺)

又甘草湯. 甘草炙, 二兩. 右一味. 以水三升, 煮減半, 分溫三服.(見千金)

鄧珍本에는 ‘外臺炙甘草湯’과 ‘千金甘草湯’이 별도의 처방으로 나오는데, 吳遷本에는 ‘千金甘草湯’이 ‘又甘草湯’으로 되어 있다. ‘又甘草湯’이라고 한 것은 바로 위의 炙甘草湯의 主治症으로 제시된 ‘肺痿涎唾多, 心中溫溫液液’에 대한 내용이 炙甘草湯과 甘草湯 두 처방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千金要方』의 甘草湯 主治症을 보면 鄧珍本の ‘肺痿涎唾多, 心中溫

49)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57.
50)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73.
51)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41.
52)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11.
53)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74.

54) 吳遷本에는 ‘亦治喉痺’의 注文이 ‘吐膿血也’ 뒤에 있다.
55)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陳株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法仁文化社. 서울. 2012. p.709, 716. 「外形·咽喉·單乳蛾·雙乳蛾·喉痺」 “會厭之兩傍腫者, 俗謂之雙乳蛾, 易治. 會厭之一邊腫者, 俗謂之單乳蛾, 難治. 古方通謂之喉痺, 皆相火之所衝逆耳.(正傳)”, 「外形·咽喉·咽喉痛」 “必用方甘草湯. 治風熱咽喉腫痛, 或喉痺神效. 桔梗二錢, 甘草荊芥防風黃芩薄荷各一錢. 右剉, 作一貼, 水煎, 徐徐服. 加玄參一錢尤妙.(必用)”
56)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76.

溫液液'과 거의 같다⁵⁷⁾⁵⁸⁾.

⑦ 「奔豚氣病脈證治 第八」

<鄧> 發汗後，燒鍼令其汗，鍼處被寒，核起而赤者，必發奔豚。氣從小腹上至心，灸其核上各一壯，與桂枝加桂湯主之。

‘發汗後’는 吳遷本에는 없으며, ‘氣從小腹上至心’은 氣從少腹上衝心者’로 되어 있다. 이는 『傷寒論』을 근거로 수정한 것이다⁵⁹⁾.

⑧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法 第十」

<鄧> 病者腹滿，按之不痛爲虛，實者爲實，可下之。舌黃未下者，下之黃自去。

‘實’은 吳遷本에 ‘痛’으로 되어 있는데, 문외 상 ‘痛’이 맞다. 趙開美本에서도 ‘痛’으로 고쳤⁶⁰⁾.

⑨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鄧> 夫心下留飲，其人背寒冷如冰大。

鄧珍本の ‘水’는 ‘手’의 오류이다. 吳遷本에는 ‘大如手’로 되어 있다. 趙開美本에는 ‘如手大’로 되어 있다⁶¹⁾.

⑩ 「嘔吐噦下利病脈證治 第十七」

<鄧> 下利，脈沈而遲，其人面少赤，身有

微熱，下利清穀者，必鬱冒，汗出而解，病人必微熱。所以然者，其面戴陽，下虛故也。

吳遷本에는 ‘厥’로 되어 있다. 이 條文은 『傷寒論』에 나오는데 ‘厥’로 되어 있다⁶²⁾. 趙開美本에는 鄧珍本과 같이 ‘熱’로 되어 있다⁶³⁾.

7) 意味를 명확히 한 경우[글자 추가 및 句節위치 변경]

① 「血痺虛勞病脈證并治 第六」

<鄧> 千金翼灸甘草湯(一云復脈湯). 治虛勞不足，汗出而悶，脈結悸，行動如常，不出百日，危急者十日死。

吳遷本에는 ‘脈結心悸’로 되어 있는데, 뜻이 더 명확하다. 『千金翼方』에 ‘脈結心悸’로 되어 있다⁶⁴⁾.

②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肺痿吐涎沫而不咳者，其人不渴，必遺尿，小便數。所以然者，以上虛不能制下故也。此爲肺中冷，必眩，多涎唾，甘草乾薑湯以溫之。若服湯已渴者，屬消渴。

吳遷本에는 ‘不能咳’로 되어 있다. 肺痿證에는 기침하는 증상이 수반되므로 鄧珍本の ‘不咳’는 기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침을 쉽게 못하는 것 [不能咳]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⁶⁵⁾.

③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咳而脈浮者，厚朴麻黃湯主之。

厚朴麻黃湯方

厚朴五兩 麻黃四兩 石膏如鷄子大 杏仁半

57)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10. 「卷第十七·肺痿第六」“治肺痿涎唾多出血，心中溫溫液液，甘草湯方(千金翼名溫液湯). 甘草二兩. 咬咀，以水三升，煮取一升半，去滓，分三服.”

58) 참고로 『千金要方』에서는 ‘炙甘草湯’, ‘復脈湯’이 보이지 않으며, 『外臺秘要』에는 炙甘草湯, 甘草湯이 모두 肺痿 處方으로 나오는데 두 處方의 主治症이 거의 같다.

王焘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75, 176. 「卷第十·肺痿」“又療肺痿涎唾多, 心中溫溫液液者. 炙甘草湯方. 甘草(四兩, 炙) 生薑(三兩, 去皮) 人參(二兩) 地黃(一斤) 阿膠(三兩, 炙) 大麻子仁(半升) 大棗(四十枚) 麥門冬(半斤, 去心) 桂心(二兩)” “千金療肺痿涎唾多, 心中溫溫液液. 甘草湯方. 甘草(二兩, 炙)”

59)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81. “燒鍼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上衝心者, 灸其核上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二兩”

60)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83.

61)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92.

62)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147. “下利, 脈沈而遲, 其人面少赤, 身有微熱, 下利清穀者, 必鬱冒, 汗出而解, 病人必微厥, 所以然者, 其面戴陽, 下虛故也.”

63)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419.

64)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38.

65) 『脈經』, 『外臺秘要』에는 鄧珍本과 같이 ‘不咳’로 되어 있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41. 王焘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75.)

升 半夏半升 乾薑二兩 細辛二兩 小麥一升 五味子半升

吳遷本에는 ‘上氣’로 되어 있다. 이는 厚朴麻黃湯의 主治症을 咳嗽보다는 上氣하는 喘症으로 본 것으로 약물 구성으로 볼 때 타당하다⁶⁶⁾.

④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鄧> 夫病人飲水多，必暴喘滿。凡食少飲多，水停心下，甚者則悸，微者短氣。脈雙弦者，寒也，皆大下後口虛。脈偏弦者，飲也。

吳遷本에는 ‘人’ 뒤에 ‘卒’이 더 있다. 바로 뒤의 ‘暴’과 호응함으로써 문의가 더 매끄럽다. 趙開美本の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⁶⁷⁾. 『千金要方』 또한 吳遷本과 같이 ‘卒’이 더 있다⁶⁸⁾.

⑤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 第十三」

<鄧> 寸口脈浮而遲，浮即爲虛，遲即爲勞，虛則衛氣不足，勞則榮氣竭。跌陽脈浮而數，浮即爲氣，數即消穀而大堅(一作緊)，氣盛則溲數，溲數即堅，堅數相搏，即爲消渴。

吳遷本에는 ‘矢’로 되어 있는데, ‘大’를 ‘矢’의 오류로 본 것으로 보인다⁶⁹⁾. 大便의 뜻으로 보는 것이 순조롭다. 趙開美本の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⁷⁰⁾.

⑥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鄧> 問曰病者苦水，面目身體四肢皆腫，

小便不利，脈之，不言水，反言胸中痛，氣上衝咽，狀如炙肉，當微咳喘。審如師言，其脈何類。

吳遷本에는 ‘脈’ 앞에 ‘師’가 더 있다. 뒤의 ‘審如師言，其脈何類’에 따르면 ‘脈之，不言……’의 주체는 ‘師’로 볼 수 있다. 이는 『脈經』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⁷¹⁾. 趙開美本の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⁷²⁾.

⑦ 「瘡癰腸癰浸淫病脈證并治 第十八」

<鄧> 腸癰之爲病，其身甲錯，腹皮急。按之濡，如腫狀，腹無積聚，身無熱，脈數，此爲腹內有癰膿。薏苡附子敗醬散主之。

吳遷本에는 ‘腸’으로 되어 있다. 앞 句節에 腸癰이라 하였으므로 癰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趙開美本에는 鄧珍本과 같이 ‘腹’으로 되어 있고⁷³⁾, 醫統本에는 ‘腸’으로 되어 있다⁷⁴⁾.

8) 글자 추가 및 변경으로 意味가 달라진 경우

① 「婦人產後病脈證治 第二十一」

<鄧> 產後七八日，無太陽證，少腹堅痛，此惡露不盡，不大便，煩躁發熱，切脈微實，再倍發熱，日哺所煩躁者，不食，食則譫語，至夜即愈，宜大承氣湯主之。熱在裏，結在膀胱也。(方見瘕病中)

<吳> 婦人產後七八日，無太陽證，少腹堅痛，此惡露不盡，不大便四五日，跌陽脈微實再倍，其人發熱，日哺所煩躁者，不食，食則譫語，利之即愈，宜大承氣湯。熱在裏，結在膀胱也。(方見瘕病中。)

이 條文은 『脈經』을 근거로 수정한 것이다⁷⁵⁾⁷⁶⁾.

66) 이 조문의 厚朴麻黃湯은 『千金要方』의 厚朴麻黃湯과 용량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條文은 일치하지 않다. 『千金要方·卷第十八·咳嗽』 “咳而大逆上氣，胸滿，喉中不利如水雞聲，其脈浮者，厚朴麻黃湯方。厚朴(五兩) 麻黃(四兩) 細辛 乾薑(各二兩) 石膏(三兩) 杏仁 半夏 五味子(各半升) 小麥(一升) 右九味，咬咀，以水一斗二升煮小麥熟，去麥內藥，煮取三升，去滓，分三服，日三。”(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29.)

67)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92.

68)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40.

69) 『醫宗金鑑』에서도 注釋에서 大便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吳謙 等 篇,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法仁文化社. 서울. 2006. p.335.) 『脈經』에는 ‘消穀而緊(要略緊作大堅)’으로 되어 있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10.)

70)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99.

71)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15. 참고로 鄧珍本の ‘苦’는 吳遷本에 ‘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脈經』과 같다.

72)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403.

73)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423.

74)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93. 재인용. 참고로 이 條文은 『脈經』, 『千金要方』, 『外臺秘要』에 보이지 않는다.

75)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66. 「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 “婦人產後七八日，無太陽證，少腹堅痛，此惡露不盡，不大便四五日，跌陽脈微實再倍，其人發熱，日哺所煩躁者，

‘再倍發熱’에 대해 ‘再倍’를 앞의 ‘煩躁發熱’의 發熱이 심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⁷⁷⁾, 吳遷本에서는 ‘其人’이 더 들어가 있어서 ‘再倍’를 ‘趺陽脈微實’에 붙여 보아야한다. 즉 吳遷本에서는 切脈 부위를 趺陽脈으로 명확히 하였고 ‘再倍’를 趺陽脈이 두 배가 되는 것[趺陽脈微實再倍]으로 파악한 것이다. 鄧珍本の ‘煩躁發熱’은 뒤의 ‘發熱, 日晡所煩躁’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뺀 것으로 보인다. ‘至夜即愈’는 뒤의 ‘宜大承氣湯’와 연결하여 ‘利之即愈’로 고쳤다⁷⁸⁾.

② 「婦人雜病脈證并治 第二十二」

<鄧> 婦人藏躁, 喜悲傷欲哭, 象如神靈所作, 數欠伸, 甘麥大棗湯主之.

吳遷本에는 ‘燥’로 되어 있다. 趙開美本에도 ‘燥’로 되어 있으며⁷⁹⁾, 『醫宗金鑑』에는 ‘躁’로 되어 있다⁸⁰⁾. 注家들 사이에서도 ‘神躁’의 뜻으로 보는 견해와 鬱熱로 인해 臟이 燥해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⁸¹⁾⁸²⁾.

9) 處方 및 方後文 관련

① 方名 차이

不能食, 譫語, 利之即愈, 宜大承氣湯. 以熱在裏, 結在膀胱也.”

- 76) 趙開美本の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431.)
- 77) 『金匱要略釋講』(최달영, 김준기, 엄용하 共著. 金匱要略釋講.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4. p.588.)에서는 日晡에 發熱이 심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78) 참고로 ‘至夜即愈’에 대해 기존 주석에서는 ‘食則譫語’의 陽明證 譫語가 밤이 되면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681.)
- 79)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434.
- 80) 吳謙 等 篇,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371.
- 8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698. 徐忠可 “…… 藏, 五藏也. 躁, 謂婦人血室, 先受積冷, 而鬱久爲熱, 則臟爲之燥 ……”
- 吳謙 等 篇,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371. “臟, 心臟也, 心靜則神藏. 若爲七情所傷, 則心得不得靜, 而神躁擾不寧也. 故喜悲象欲哭, 是神不能主情也. ……”
- 82) 참고로 『脈經』에는 ‘燥’로 되어 있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75.)

「嘔吐噦下利病脈證治 第十七」

<鄧> 病人胸中似喘不喘, 似嘔不嘔, 似噦不噦, 徹心中憤憤然無奈者, 生薑半夏湯主之.

半夏半斤 生薑汁一升

吳遷本에는 ‘生薑汁半夏湯’으로 되어 있다.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鄧> 水之爲病, 其脈沈小, 屬少陰, 浮者爲風, 無水, 虛脹者, 爲氣. 水, 發其汗即已, 脈沈者, 宜麻黃附子湯, 浮者, 宜杏子湯.

麻黃附子湯方

麻黃三兩⁸³⁾ 甘草二兩 附子一枚, 炮

吳遷本에는 方名이 ‘附子麻黃湯’으로 되어 있으며, 약물 순서도 ‘附子, 麻黃, 甘草’ 순으로 쓰여 있다. 이는 君藥에 따라 方名과 약물 순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條文에서 脈이 沈小한 경우는 少陰의 문제라고 하였으므로 君藥을 附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脈經』의 조문에도 ‘附子麻黃湯’으로 되어 있다⁸⁴⁾⁸⁵⁾.

② 方の 藥物 기술 순서 수정[君藥을 앞에 기술]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鄧> 病歷節, 不可屈伸疼痛, 烏頭湯主之.

烏頭湯方. 治脚氣疼痛, 不可屈伸.

麻黃 芍藥 黃芪各三兩 甘草炙 川烏五枚, 咬咀, 以蜜二升, 煎取一升, 即出烏頭

吳遷本에는 川烏가 烏頭로 되어 있으며 구성 약물이 ‘烏頭, 甘草, 麻黃, 芍藥, 黃芪’의 순으로 쓰여 있는데, 이는 君藥인 烏頭를 앞에 둔 것이다. 또한 鄧珍本에는 甘草의 용량이 빠져 있는데, 吳遷本에는 ‘甘草, 麻黃, 芍藥, 黃芪 各三兩’으로 되어 있다⁸⁶⁾⁸⁷⁾.

83) 吳遷本에는 ‘二兩’으로 되어 있다.

84)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14.

85) 이상의 예시 외에 「黃疸病脈證并治 第十五」의 ‘梔子大黃湯’은 吳遷本에는 ‘梔子枳實豉大黃湯’으로, ‘大黃硝石湯’은 ‘大黃黃藥梔子消石湯’으로 되어 있다.

③ 藥物 用量 빠진 경우 보충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千金甘草湯.

甘草

右一味, 以水三升, 煮減半, 分溫三服.

吳遷本에는 ‘甘草 炙, 二兩’으로 되어 있다⁸⁸⁾. 『千金要方』에 ‘二兩’으로 되어 있다⁸⁹⁾.

「血痺虛勞病脈證并治 第六」

<鄧> 桂枝加龍骨牡蠣湯方(小品云虛羸浮熱汗出者, 除桂, 加白薇附子各三分, 故曰二加龍骨湯.)

桂枝 芍藥 生薑各三兩 甘草二兩 大棗十二枚 **龍骨 牡蠣**

右七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分溫三服.

鄧珍本, 趙開美本에는 龍骨, 牡蠣의 用量이 빠져 있는데, 吳遷本에는 ‘各二兩’으로 되어 있다. 『金匱要略』 通行本의 用量은 모두 ‘各三兩’으로 되어 있다⁹⁰⁾.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法 第十」

<鄧> 烏頭桂枝湯方

烏頭

右一味. 以蜜二斤, 煎減半, 去滓, 以桂枝

湯五合解之, □得一升後, 初服二合, 不知即服三合. 又不知, 復加至五合. 其知者, 如醉狀, 得吐者, 爲中病.

鄧珍本에는 烏頭의 用量이 없는데, 吳遷本에는 ‘烏頭’ 뒤에 ‘五枚. 實者去角’이 더 있다⁹¹⁾⁹²⁾.

④ 藥物 用量이 다른 경우⁹³⁾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法 第十」

<鄧> 烏頭煎方

烏頭**大者五枚**, 熬, 去皮, 不㕮咀

吳遷本에는 ‘十五枚’로 되어 있다. 『千金要方』에 ‘十五枚’로 되어 있다⁹⁴⁾⁹⁵⁾.

91) 趙開美本에도 烏頭의 用量이 빠져 있으며, 『千金要方』에는 ‘實中者五枚, 除去角’이라고 되어 있다.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87.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80.)

92) 이상의 예시 외에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方을 보면 鄧珍本에는 ‘桂枝 生薑三兩……’이라고 하여 桂枝의 用量이 없는데, 吳遷本에는 ‘三兩’이 ‘各三兩’으로 되어 있다.

93) 鄧珍本과 吳遷本의 藥物 用量이 다른 경우는 여기의 예시 외에 더 보인다.

「痙濕喝病脈證治 第二」 白朮附子湯의 모든 藥物, 甘草附子湯의 白朮. 「癰病脈證并治 第四」 白虎加桂枝湯의 粳米. 「血痺虛勞病脈證并治 第六」 小建中湯의 甘草, 生薑.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皂莢丸의 皂莢(<鄧> ‘八兩’ → <吳> ‘一掬’), 葶藶大棗瀉肺湯의 大棗, 桂枝去芍藥加皀湯의 大棗. 「胸痺心痛短氣病脈證治 第九」 橘枳薑湯의 枳實.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第十」 柴胡桂枝湯의 半夏.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茯苓飲의 橘皮, 苓甘五味薑辛湯의 甘草, 乾薑, 細辛, 桂枝五味甘草去桂加乾薑細辛半夏湯의 甘草, 細辛.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防己茯苓湯의 防己, 麻黃附子湯의 麻黃, 黃芪芍藥桂枝苦酒湯의 芍藥. 「黃疸病脈證并治 第十五」 茵陳蒿湯의 大黃, 茵陳五苓散의 茵陳蒿末. 「嘔吐下利病脈證治 第十七」 半夏瀉心湯의 黃芩, 乾薑, 人參, 甘草, 黃芩加半夏薑湯의 生薑, 大棗, 小柴胡湯의 黃芩, 人參, 甘草, 生薑, 大半夏湯의 半夏, 橘皮竹茹湯의 竹茹, 黃芩湯의 桂枝. 「跌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蝨蟲病脈證治 第十九」 烏梅丸의 附子. 「婦人妊娠病脈證并治 第二十」 當歸芍藥散의 當歸, 乾薑人參半夏丸의 半夏, 葵子茯苓散의 葵子. 「婦人產後病脈證治 第二十一」 下瘀血湯의 桃仁. 「婦人雜病脈證并治 第二十二」 抵當湯의 桃仁.

94)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580. “烏頭十五枚, 熬黑不切” 참고로 『千金要方』에는 大烏頭湯으로 되어 있다.

95) 趙開美本의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86.)

86) 趙開美本에도 甘草의 用量이 빠져 있다.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67.)

87)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澤漆湯 또한 鄧珍本에서는 半夏, 紫參 뒤에 澤漆이 기술되어 있으나 吳遷本에서는 君藥인 ‘澤漆’을 가장 앞에 기술하였다. (吳遷本の 澤漆은 澤漆의 오류임)

88) 趙開美本에도 甘草의 用量이 빠져 있다.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77.)

89)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10.

90) 『金匱要略』(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90.), 『金匱要略校注』(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1-62.)에서는 모두 醫統本의 ‘各三兩’을 따르고 있으며, 『醫宗金鑑』, 『桂林古本傷寒雜病論』에도 또한 三兩으로 되어 있다. 『外臺秘要』에는 桂枝加龍骨牡蠣湯이 桂心湯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桂心, 芍藥, 甘草, 龍骨, 牡蠣의 用量이 3兩으로 되어 있다. (王焘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310. 참고로 본 書의 주석에 따르면 『外臺秘要』 程本에는 2兩으로 되어 있음)

「痲濕喝病脈證治 第二」

麻黃杏仁薏苡甘草湯方

<鄧> **麻黃去節，半兩**，湯泡 甘草一兩，
炙 **薏苡仁半兩 杏仁十個**，去皮尖，炒

<吳> **麻黃二兩**，去節 **杏仁三十個**，去皮
尖 **薏苡仁一兩** 甘草一兩，炙

鄧珍本과 吳遷本의 약물 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吳遷本 藥物 용량의 출전은 찾지 못하였다⁹⁶⁾.

「痲濕喝病脈證治 第二」

防己黃芪湯方

<鄧> **防己一兩 甘草半兩**，炒 **白朮七錢半**
黃芪一兩一分，去蘆

右剉麻豆大，每抄五錢匕，**生薑四片，大棗**
一枚，水盪半，煎八分，去滓，溫服，良久再
服。

<吳> **防己四兩 黃芪五兩 甘草二兩**，炙
白朮三兩 生薑二兩，切 **大棗十二枚**，擘

右六味 ……

吳遷本の 防己，黃芪，甘草，白朮，大棗의 약물 용
량은 『千金要方』과 동일하다. 또한 鄧珍本에서 生
薑，大棗가 方後에 나온 것과 달리 吳遷本과 『千金
要方』에서는 生薑，大棗가 기타 약물과 같이 구성
약물로 들어가 있으며 方後에 ‘六味’로 명시되어 있
다. 다만 『千金要方』에는 防己가 漢防己로 되어 있
고 生薑의 용량이 빠져 있다⁹⁷⁾.

「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治 第三」

<鄧> 升麻鱉甲湯方

升麻二兩 當歸一兩 蜀椒炒去汗，一兩 甘
草二兩 鱉甲**手指大**一片，炙 雄黃半兩，研

吳遷本에는 ‘如手大’로 되어 있으며, 趙開美本의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⁹⁸⁾. 鱉甲 모양에 근거하면 ‘如
手大’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外臺秘要』에는
‘大如手’으로 되어 있다⁹⁹⁾.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五苓散方

<鄧> **澤瀉一兩一分 猪苓三分**，去皮 **茯苓**
三分 白朮三分 桂二分，去皮

<吳> **猪苓去皮，十八銖 茯苓十八銖 澤瀉**
一兩六銖 白朮十八銖 桂枝半兩，去皮

吳遷本의 약물 용량은 『傷寒論』의 용량과 동일하
다¹⁰⁰⁾.

⑤ 藥物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①**千金葶藶湯**。治咳有微熱，煩滿，
胸中甲錯，是爲肺癰。

葶藶二升 薏苡仁半升 桃仁五十枚 瓜瓣半
升

右四味。以水一斗¹⁰¹⁾，先煮葶藶¹⁰²⁾得五
升，去滓，內諸藥，煮取二升，服一升，再服。
當吐如膿。

吳遷本에는 ①가 ‘治肺癰. 葶藶湯’으로 되어 있
으며, ‘葶藶’이 ‘葶葉’으로 되어 있다. 吳遷本에서 條文
내용을 삭제한 것은 『外臺秘要』를 따른 것으로 보이
는데¹⁰³⁾, 『外臺秘要』에서는 이 條文이 黃昏湯에 나
오며 葶藶湯은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外臺秘
要』에는 葶藶湯 方後文 끝에 ‘仲景傷寒論云葶藶切二
升’이 있다¹⁰⁴⁾¹⁰⁵⁾¹⁰⁶⁾.

98)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61.

99)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5. 참고로 『金匱要略』과 『外臺秘要』의 약물 구
성과 용량에는 차이가 있다.

100)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
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
東洋醫學會. 2009. p.71.

101) 鄧珍本에는 ‘斗’가 ‘升’으로 되어 있는데, 吳遷本을 따라
‘斗’로 고쳤다.

102) 吳遷本에는 ‘葶藶’이 ‘葶’로 되어 있다.

103) 吳遷本에는 方後 끝에 ‘見千金의 注文이 있는데, 이는
誤謬로 보인다.

96) 『外臺秘要』에 薏苡麻黃湯이 보이나 용량은 鄧珍本, 吳遷
本の 것과 다르다.(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
京. 華夏出版社. 1993. p.365. 「卷第十九·風濕」)

“又療濕家，始得病時，可與薏苡麻黃湯方。
薏苡(半升) 麻黃(四兩，去節) 甘草(二兩，炙) 杏仁(二兩，
去皮尖兩仁，碎)
上四味 …… (此本仲景方，分兩小異)”

97)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329-330. 참고로 『千金要方』에는 防己黃芪湯의
方名이 없다.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法 第十」

<鄧> 寒氣厥逆, 赤丸主之.

赤丸方

茯苓四兩 半夏四兩, 洗, 一方用桂 烏頭二兩, 炮 細辛一兩, 千金作人參

右六味. 末之, 內真朱爲色, 煉蜜丸, 如麻子大. 先食酒飲下三丸, 日再夜一服. 不知, 稍增之, 以知爲度.

鄧珍本の 赤丸方은 4味로 구성되어 있는데, 方後에는 ‘六味’라고 되어 있다. 吳遷本에는 ‘附子二兩, 炮, 去皮 射罔一枚如棗大’라고 하여 附子和 射罔이 더해져 6味로 구성되어 있다. 『千金要方』의 赤丸도 吳遷本과 같이 6味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鄧珍本 方後文의 ‘下三丸’, ‘稍增之, 以知爲度’는 吳遷本에 ‘服一丸’, ‘二丸爲度’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千金要方』을 따른 것이다¹⁰⁷. 趙開美本에는 方後의 ‘右六

味’가 ‘右四味’로 되어 있다¹⁰⁸.

⑥ 方後文 및 注釋 오류 수정

「痙濕喝病脈證治 第二」

<鄧> 葛根湯方

葛根四兩 麻黃三兩, 去節 桂枝二兩, 去皮 芍藥二兩 甘草二兩, 炙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右七味. 咬咀, 以水一升, 先煮麻黃葛根, 減二升, 去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覆取微似汗, 不須啜粥. 餘如桂枝湯法將息及禁忌.

문의 상 鄧珍本の ‘一升’은 誤謬이다. 吳遷本에는 ‘一斗’로 되어 있는데, 이는 『傷寒論』 葛根湯의 경우와 같다¹⁰⁹¹¹⁰.

「痙濕喝病脈證治 第二」

<鄧> 大承氣湯方

大黃四兩, 酒洗 厚朴半斤, 炙, 去皮 枳實五枚, 炙 芒硝三合

右四味. 以水一斗, 先煮二物, 取五升, 去滓, 內大黃, 煮取二升, 去滓, 內芒硝, 更上火微一二沸, 分溫再服. 得下止服.

吳遷本에는 ‘微火’로 되어 있다. 『傷寒論』에도 ‘微火’로 되어 있다¹¹¹.

104)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80, 181. 「卷第十·肺癰方」

“千金療咳有微熱, 煩滿, 胸中甲錯, 是爲肺癰, 黃昏湯方.

黃昏(手掌大一枚, 是合昏木皮)

上一味. 切, 以水三升, 煮得一升, 分再服. 範汪同.

……

又療肺癰, 葦湯方(참고로 본 書의 주석에 따르면 『外臺秘要』程本에는 ‘葦莖湯’으로 되어 있음)

剉葦(一升) 薏苡仁(半升) 桃仁(五十枚去尖皮兩仁者) 瓜瓣(半升)

上四味. 咬咀, 以水一斗, 先煮葦令得五升, 去滓, 悉納諸藥, 煮取二升, 分再服. 當吐如膿. 仲景傷寒論云葦葉切二升. 千金, 範汪同.(千金云葦莖二升, 先以水二斗煮五升)”

105) 『千金要方』에는 ‘治咳有微熱, 煩滿, 胸中甲錯, 是爲肺癰’條文에 黃昏湯과 葦莖湯[『千金要方』에는 ‘葦莖湯’方名이 없이 ‘又方’으로 되어 있음] 두 처방이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611-612. 「卷第十七·肺癰」)

“治咳有微熱, 煩滿, 胸中甲錯, 是爲肺癰, 黃昏湯方.

黃昏手掌大一片, 是合昏皮也. 咬咀, 以水三升, 煮取一升, 分二服.

又方.

葦莖(切, 二升, 以水二斗, 煮取五升, 去滓) 薏苡仁(半升) 瓜瓣(半升) 桃仁(三十枚)

右四味. 咬咀, 內葦汁中煮取二升, 服一升, 當有所見, 吐膿血.”

106) 吳遷本에는 ‘桃仁 五十枚’ 뒤에 ‘去皮尖’이 더 있으며, 方後의 <鄧> ‘一升’이 ‘一斗’로 되어 있으며, <鄧> ‘服一升, 再服’이 ‘分溫再服’으로 되어 있는데[『外臺秘要』에는 ‘分再服’으로 되어 있음], 이 또한 『外臺秘要』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7)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79. 「卷第十六·痙冷積熱」

“赤丸. 主寒氣厥逆方.

茯苓 桂心(各四兩) 細辛(一兩) 烏頭 附子(各二兩) 射罔(加大棗一枚)

右六味. 末之, 內真朱爲色, 蜜丸如麻子. 空腹酒服一丸, 日再, 夜一服. 不知, 加至二丸, 以知爲度. 一方用半夏四兩, 而不用桂.”

108)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86.

109)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61.

110) 趙開美本에는 ‘七升’으로 되어 있다.(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53.)

111)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113.

「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鄧> 甘遂半夏湯方

甘遂大者三枚 半夏十二枚，以水一升，煮取半升，去滓 芍藥五枚 甘草如指大一枚，炙，一本作無

右四味，以水二升，煮取半升，去滓，以蜜半升，和藥汁煎取八合，頓服之。

吳遷本에는 ‘一本無’로 되어 있다. ‘作’이 없는 것이 문의 상 타당하다. 趙開美本の 경우는 鄧珍本과 같다¹¹²⁾.

⑦ 藥物 修治 및 方後文 보완

「嘔吐噦下利病脈證治 第十七」

<鄧> 訶梨勒散方

訶梨勒十枚，煨

吳遷本에는 ‘十枚，煨’가 ‘十枚，以麵裹煨灰火中煨之，令麵熟去核’으로 修治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第七」

<鄧> 小青龍加石膏湯方

麻黃 芍藥 桂枝 細辛 甘草 乾薑各三兩 五味子 半夏各半升 石膏二兩

右九味，以水一斗，先煮麻黃，去上沫，內諸藥，煮取三升。強人服一升，羸者減之，日三服，小兒服四合。

吳遷本에는 ‘先煮麻黃’ 다음에 ‘減二升’이 더 있는데, 이는 『傷寒論』, 『金匱要略』 小青龍湯 方後文에 따라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¹¹³⁾.

吳遷本에는 이외에 ‘去皮’ ‘炙’ ‘擘’ ‘去節’ ‘切’ ‘破’ ‘去皮尖’ ‘碎，綿裹’ ‘熬’ ‘去心’ ‘洗’ 등 藥物 修治 사항을 추가한 경우와 ‘咬咀’ ‘去滓’ ‘取’ ‘和’ ‘服’ 등을 보충하여 方後文을 매끄럽게 한 경우가 다수 보인다.

112)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93.
113)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 『傷寒論』(趙開美原本), 『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64, 283, 352.(순서대로 『傷寒論』, 『金匱要略』 鄧珍本, 吳遷本)

⑧ 校勘 추가사항 주석표기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鄧> 侯氏黑散. 治大風，四肢煩重，心中惡寒不足者.(外臺治風癰)

菊花四十分 白朮十分 細辛三分 茯苓三分 牡蠣三分 桔梗八分 防風十分 人參三分 礬石三分 黃芩五分 當歸三分 乾薑三分 芍藥三分 桂枝三分

右十四味，杵爲散，酒服方寸匕。日一服。初服二十日，溫酒調服，禁一切魚肉大蒜，常宜冷食。六十日止，即藥積在腹中不下也。熱食即下矣。冷食自能助藥力。<吳> **(外臺有鍾乳礬石各三分，無桔梗。)**

吳遷本에는 方後文 뒤에 『外臺秘要』와의 약물 구성 차이에 대한 注釋이 있다¹¹⁴⁾.

⑨ 出典 명시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第五」

<鄧> 風引湯. 除熱癰痛。

大黃 乾薑 龍骨各四兩 桂枝三兩 甘草 牡蠣各二兩 寒水石 滑石 赤石脂 白石脂 紫石英 石膏各六兩

右十二味，杵，麤篩，以韋囊盛之。取三指撮，井花水三升，煮三沸。溫服一升。(治大人風引，少小驚癰瘈瘲，日數十發，醫所不療。除熱方。巢■，脚氣宜風引湯。)

吳遷本에는 ‘治’字 앞에 ‘深師云’이 더 있는데, 『外臺秘要』에 근거하여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¹¹⁵⁾.

「婦人妊娠病脈證并治 第二十」

<鄧> 妊娠養胎，白朮散主之。

114) 王焘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276. 桔梗이 없고 鍾乳, 礬石이 더 있는 차이 외에 기타 구성 약물의 용량은 동일하다.

115) 王焘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278. 「卷第十五·風癰及驚癰方」 “深師療大人風及少小驚癰瘈瘲，日數十發，醫所不能療，除熱方。龍骨 大黃 乾薑(各四兩) 牡蠣(三兩，熬) 滑石 赤石脂 白石脂 桂心 甘草(炙，各三兩) 上九味，……”

白朮散方(見外臺)

白朮四分 芎藭四分 蜀椒三分, 去汗 牡蠣二分

右四味 …… 服之勿置.

吳遷本에는 ‘見外臺’의 注文이 ‘服之勿置’ 뒤에 ‘見外臺出古今錄驗’이라고 되어 있다¹¹⁶⁾.

10) 기타

條文 중 ‘問曰’, ‘師曰’, ‘答曰’ 등이 빠진 부분을 이를 추가하여 問答이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¹¹⁷⁾

Ⅲ. 考 察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吳遷本은 吳遷이 직접 筆寫한 板本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吳遷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吳遷本 내의 吳遷의 自注를 통해 그의 『金匱要略』에 대한 인식과 筆寫 작업 범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의 自注는 吳遷本을 통틀어 총 5곳에서 보이는데, 모두 鄧珍本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小字本の 탈락된 條文을 鄧珍本에 근거하여 補入
『血痺虛勞病脈證并治 第六』

<吳> 9. 男子平人, 脈虛弱細微者, 善盜汗也.(脈經云盜汗出也¹¹⁸⁾)

10. 人年五六十, 其病脈大者, 痺俠背行, 苦腸鳴, 馬刀俠癭者, 皆爲勞得之.(脈經云人年五六十其脈浮大者¹¹⁹⁾)

11. 脈沈小遲, 名脫氣, 其人疾行則喘喝, 手足逆寒, 腹滿, 甚則瀉泄, 食不消化也.

12. 脈弦而大, 弦則爲減, 大則爲芤. 減則

爲寒, 芤則爲虛, 虛寒相搏, 此名爲革. 婦人則半產漏下, 男子則亡血失精.

吳遷本에는 12조 다음 줄에 “右四條, 古本竝無, 鄧氏所編金匱方却有之. 今依補入竝見脈經第八卷虛勞脈證第六”이라는 注釋이 있다. 여기의 ‘鄧氏所編金匱方’¹²⁰⁾은 『新編金匱方論』 즉, 鄧珍本을 가리키며 ‘古本’은 祝均實이 소장하고 있었던 小字本 『金匱要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注釋을 통해 이 4條文이 古本[小字本]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¹²¹⁾, 鄧珍本과 비교해 보면 두 條文 뒤에 鄧珍本에는 없는 『脈經』과의 校勘 사항이 注釋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鄧珍本の 내용이 誤謬임을 강조함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第十』

<鄧> 腹痛 …… 大烏頭煎主之.

烏頭煎方

烏頭大者五枚, 熬, 去皮, 不咬咀

右以水三升 …… 不可一日再服.

吳遷本에는 烏頭的 용량이 ‘十五枚. 熬黑, 不咬咀’로 되어 있다. 吳遷은 鄧珍本の ‘大者五枚, 熬, 去皮, 不咬咀’句에 대해 方後文 뒤에 ‘鄧氏烏頭大者五枚十字必誤也’라고 하여 鄧珍本の 용량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 小字本 보다 鄧珍本の 내용이 近理하다고 파악한 경우

1) 『水氣病脈證并治 第十四』

<鄧> 黃汗之病 …… 桂枝加黃芪湯主之.

桂枝加黃芪湯方

桂枝 芍藥各三兩 甘草二兩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黃芪二兩

右六味. …… 若不汗, 更服.

吳遷本에는 ‘桂枝加黃芪湯’이 ‘桂枝加黃芪五兩湯’으로 되어 있고 ‘主之’ 뒤에 ‘鄧氏本無五兩二字’의

116) 王焘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656. 「卷第三十三·胎數傷及不良方」『古今錄驗療妊娠養胎, 白朮散方』

117) 예를 들면, 「瘧病脈證并治 第四」<鄧> 2. 病瘧, 以月一日發, 當以十五日愈, 設不差, 當月盡解. 如其不差, 當如何. 師曰此結爲癥瘕, 名曰瘧母. 急治之, 宜煎甲煎丸.

; 吳遷本에는 ‘病瘧’이 ‘問曰瘧’으로 되어 있다.

118) 鄧珍本에는 ‘脈經云盜汗出也’의 注文이 없다.

119) 鄧珍本에는 ‘脈經云人年五六十其脈浮大者’의 注文이 없다.

120) 뒤이어 나오겠지만 吳遷의 5가지 自注에서는 鄧珍本을 ‘鄧氏本’, ‘鄧氏所編金匱方’, ‘鄧本’으로 기술하고 있다.

121) 다른 篇에도 鄧珍本の 條文이 없는 경우가 몇 곳 있지만 이 부분에서만 吳遷이 鄧珍本の 條文을 補入한 것으로 보인다.

吳遷의 自注가 달려 있다. 구성 약물의 黃芪 용량을 보건대 吳遷本의 方名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2) 「婦人妊娠病脈證并治 第二十」

<吳> ㉔ 婦人妊娠，經斷三月，而得漏下，下血四十日不止，胎欲動在於臍上，此爲妊娠。 六月動者，前三月經水利時，胎也，下血者，後斷三月，衄也。所以下血不止者，其瘕不去故也，當下其瘕。宜桂枝茯苓丸方(㉕) 鄧本云婦人宿有瘕病，經斷未及三月，而得漏下不止。胎動在臍上者，爲瘕痼害。

<鄧> ㉕ 婦人宿有瘕病，經斷未及三月，而得漏下不止，胎動在臍上者，爲瘕痼害。 妊娠六月動者，前三月經水利時，胎，下血者，後斷三月，衄也。所以血不止者，其瘕不去故也，當下其瘕。桂枝茯苓丸主之。

吳遷本 ㉔의 내용을 보면 妊娠으로 經水가 끊어진 지 3개월째부터 下血을 40일 동안 그치지 않은 것과 ‘此爲妊娠’이 부합하지 않는다. 吳遷은 이에 ㉕의 鄧珍本 句節을 ㉔의 自注에 기술함으로써 鄧珍本이 近理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¹²²⁾.

이상의 吳遷의 自注¹²³⁾를 통해 吳遷의 筆寫작업은 기존 板本과 비교함으로써 善本을 구성하려는 태도에서 필사작업을 진행하였고 國子監의 小字本 작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脈經』 등 醫書와의 校勘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새롭게 발견한 古本이 『金匱要略』 板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가능한 작업이다. 또한 古本의 명백한 誤謬로 보이는 것 또한 함부로 수정하지 않고 自注를 통해 견해를 밝힌 점, 단순한 글자상의 校勘뿐만 아니라 條文 내용까지 파악하여 自注를 붙인 점으로 보건대 吳遷은 板本學 및 『金匱要略』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로 보인다.

IV. 結 論

최근 학계에 보고된 小字本系統 『金匱要略』 吳遷本과 大字本系統 『金匱要略』의 最古本인 鄧珍本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吳遷本과 鄧珍本은 編制, 目次, 篇名, 條文 및 句節의 위치, 條文 및 句節의 有無, 方名, 藥物 用量, 修治, 方後文 등에 있어서 全篇에 걸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

2. 小字本 『金匱要略』 刊行 작업은 校正醫書局에서 刊行된 大字本 『金匱要略』[『金匱要略方論』]을 底本으로 하여 전면적인 校勘작업을 거친 후 이를 選別하여 기존의 大字本 『金匱要略』을 수정, 보완하였다. 校勘에 쓰인 주요 醫書로는 『千金要方』, 『外臺秘要』, 『脈經』, 『傷寒論』이다. 즉 校正醫書局에서 위 네 醫書를 刊行한 기초 위에 『金匱要略』에 대한 대대적인 校勘 補完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다¹²⁴⁾.

3. 위 네 醫書에서 校勘 근거를 찾지 못한 부분 또한 있는데¹²⁵⁾, 이는 小字本 작업 시에 위의 4가지 외의 醫書에서 그 근거를 찾았거나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광범위한 차이로 인해 大字本 『金匱要略』이 刊行된 이후 『金匱要略』의 새로운 板本을 발견했

122) 吳遷本의 ㉔는 『脈經』과 일치한다. 다만 『脈經校注』에서는 注釋에서 ‘瘕痼害’ 3글자는 原文에 탈락되어 있는데 『金匱要略』에 근거하여 補入한다고 하면서 “…… 此爲瘕痼害。妊娠六月動者……”로 原文을 수정하였다.(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56.) 小字本 작업 시에 『脈經』의 誤謬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3) 吳遷이 自注로서 견해를 밝힌 마지막 한 곳 또한 鄧珍本과의 校勘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吳遷本 條文은 다음과 같다. 婦人產後病脈證治 第二十一 <吳> “婦人產得風，續之數十日不解，頭微痛，惡寒，時時有熱，心下堅，乾嘔汗出。雖久，陽旦證續在耳，可與陽旦湯，即桂枝湯是也。(方見下利中。) (鄧氏本，得作後，堅作悶。)”

124) 『傷寒論』은 1065년, 『千金要方』는 1066년, 『脈經』은 1068년, 『外臺秘要』는 1069년에 刊行되었다.(왕소영, 최환수, 김용진. 宋代 校正醫書局에 대한 고찰 -학문연구의 근거구축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4. 25(1). p.99.)

125) 校勘 근거를 찾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筆者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國子監 跋文에서 『金匱要略』만이 아니라 기타 醫書들에 대해서도 小字本을 刊行했다고 한 점¹²⁶⁾과 跋文에서 새로운 板本을 발견했다는 단서가 없고 ‘重行校對’라고 하여 기존 板本을 토대로 기타 醫書와 校勘하여 이루어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 小字本을 刊行한 취지로 경제적인 이유를 든 점으로 볼 때 大字本 『金匱要略』을 완성한 후에 『金匱要略』의 새로운 板本을 발견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校勘에 사용된 주요 醫書들이 小字本 『金匱要略』이 刊行되기 이전에 校正醫書局에서 刊行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5. 小字本 『金匱要略』 刊行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民間의 醫師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北宋代에 大字本 『金匱要略』[金匱要略方論]이 刊行된 지 30년만에 대대적인 補完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볼 때 校正醫書局에서 刊行했던 『金匱要略方論』에 미비한 점이 많았고 이를 보완할 목적 또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吳遷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의 自注와 跋文을 통해 볼 때 새롭게 발견한 古本[小字本 金匱要略]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단순한 筆寫 작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板本인 鄧珍本과의 校勘을 진행했고, 小字本の 작업취지를 파악하여 小字本에서 빠진 條文에 대해 『脈經』과 校勘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볼 때 吳遷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金匱要略』의 善本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며, 이는 그가 板本學과 醫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文獻 研究는 善本을 구성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특히 『金匱要略』과 같이 純一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醫書의 경우에는 善本을 만드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小字本系統 『金匱要略』인

吳遷本은 大字本 『金匱要略』을 토대로 編制, 條文 및 句節의 위치 및 내용, 藥物 用量, 方後文 등 대대적으로 校勘을 작업을 거쳐 완성한 板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거쳤다고 하여 鄧珍本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大字本系統 『金匱要略』과 吳遷本을 서로 참조하면 『金匱要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줄이고 조문을 이해하는 데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논문>

1. 眞柳誠, 梁永宣, 段逸山, 鄒西禮. 金匱要略의 成書與現存板本問題. 中華醫史雜誌. 2009. 39(6). p.359, 360, 361.
2. 段逸山, 鄒西禮. 明抄北宋小字本金匱要略方研究. 中醫文獻雜誌. 2010. (2). p.2, 3.
3. 眞柳誠. 北宋政府校正『金匱要略』小字本の出現. 日本東洋醫學雜誌. 2008. p.59.
4. 錢超塵. 宋本『傷寒論』刊行后流傳演變簡史. 醫史文獻. 2004. (2). p.12.
5. 왕소영, 최환수, 김용진. 宋代 校正醫書局에 대한 고찰 -학문연구의 근거구축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4. 25(1). p.99.

<단행본>

1. 日本東洋醫學會 傷寒金匱編刊小委員會編. 善本翻刻『傷寒論』(趙開美原本)·『金匱要略』(鄧珍本·吳遷本).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61, 64, 71, 81, 113, 147, 262. 283, 352, 410, 411.
2.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353, 357, 366, 367, 373, 374, 376, 377, 383, 386, 387, 392, 393, 399, 403, 419, 423, 431, 434.
3.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79, 580, 610, 611, 628, 629, 640. pp.329-330, 611-612.
4.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5, 175, 176, 180, 181, 276,

126) 小字本 板本の 작업방식, 목적에 대해서는 國子監 跋文에 언급된 小字本 刊行 醫書들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 278, 310, 365, 656.
5.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97, 310, 312, 314, 315, 325, 327, 341, 356, 366, 375. pp.327-328.
 6.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 88, 158, 160, 190, 681, 698.
 7.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 122, 193. pp.61-62.
 8. 吳謙 等 篇,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335, 371.
 9.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38.
 10. 최달영, 김준기, 염용하 共著. 金匱要略釋講.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4. p.588.
 11.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陳株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709, 716, 1056, 1057.